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나눔 사진전'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나명주)가 지난 13일부터 서구 치평동 무라카미 로터스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참나, 희망으로 날다' 사진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방송광고진흥공사 '김치 나누기, 사랑 더하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강장원)는 최근 광주 서구 매월동 김치타운에서 '방송광고인 송년 김치나누기, 사랑더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제공>

한국전기공사협, 노인정에 사랑의 쌀·연탄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회장 문유근)는 최근 '사랑의 연탄 나눔 및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 광주 동구 동명동 동심회관 노인정에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사)따뜻한 한반도 연탄나눔운동 광주지부에 사랑의 연탄 6000장을 기증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 '지구촌 친선의 밤'



UNESCOKorea 광주·전남협회(회장 장정석)는 최근 광주 서구 농성동 리퍼스타에서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2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 지구촌 친선의 밤'을 개최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제공>

“한국의 ‘고봉밥’ 타인을 식구로 만드는 情 담겨”

전라도와 인연 30년...日 국립민족학박물관 아사쿠라 도시오 박사

“한반도에서 사용했던 전통 밥상을 보면 다리가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왜 다리를 직선으로 하지 않고 만들기 어려운 곡선을 택했는지, 일본인으로서 무척 궁금했어요.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동근 다리에는 한국인의 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에게 밥상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정 많은 한국인. 이러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동근 다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안문화원(원장 이현조)이 주관하는 '2013 신안문화강연회'가 지난 1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은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문화자원센터 센터장인 아사쿠라 도시오(63) 박사가 '음식문화를 통해 본 한·일 비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아사쿠라 박사는 지난 1979년 인류학자로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30여 년간 한국인을 주제로 연구를 계속했다. 특히 198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공부하며 신안군 도초면을 중심으로 한국 농촌사회 및 음식문화를 연구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문화 전문가로 인정 받아 2004년부터 일본 NHK에서 방송되

는 한류 드라마 '대장금', '태왕사신기', '이산' 등의 일본판 감수를 맡고 있다.

인류학자인 아사쿠라 박사는 한국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음식문화를 선택했다. 그는 일본과 다른 한국인의 인사법, 그리고 한국에서 유독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떡'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낮은 사람에게 주로 건네는 인사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는 ‘식사하셨어요?’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떡’은 표현은 ‘살날에 나이를 먹다’, ‘더위를 먹다’, ‘마음을 먹다’, ‘욕을 먹다’까지 무척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외모도 비슷한 한일 두 나라가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사쿠라 박사는 인류학자로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다. 그래서 전남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광주에서 신안 도초도를 수십 차례나 오가며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면 이를 만들고 담는 과정이 보이며 여기에 문화적,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먹은 밥상을 잊지 못했다. 아침 일찍부터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푸짐한 반찬과 같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은 일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일본에서는 밥을 가득 담지 않고 더 먹고 싶어하는 경우에 더 주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푸짐하게 고봉으로 담아주며 정을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사쿠라 박사는 한국의 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먹지도 못할 '고봉밥'을 건네고, 밥 한번 같이 먹었을 뿐인데 '타인'이 '식구'가 되는 게 한국인들의 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 한국인을 30년 넘게 연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정'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한국인의 정에 감명받은 아사쿠라 박사는 한일 두나라가 아픈 과거사를 넘어 진정으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의 정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두 나라 국민 모두 정이 많지만 고통스런 과거 기억 때문에 갈등의 골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를 치유하고 정을 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목표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역도산 영광, 손자가 있습니다”

모모타 지카라씨 日서 데뷔

“할아버지처럼 강인한 정신과 가라테움(당수치기)으로 역도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프로레슬링 황금기를 구가했던 국민적 영웅 역도산(力道山, 본명 김신락)의 손자 모모타 지카라(百田力·32)씨가 16일 도쿄 고라쿠엔(後樂園)홀에서 프로레슬링 선수로 데뷔한다. 역도산의 50번째 기일(15일) 바로 다음날이다.

그것도 역도산의 아들인 모모타 미쓰오(百田光雄) 프로레슬러와 한 조가 돼 벌이는 태그매치로 레슬러로서 첫선을 보인다. 역도산 2, 3세 부자가 함께 링에 서는 것이

다. 프로 레슬러 3대의 탄생도 세상에서 처음이다.

역도산 손자 지카라씨는 “전부터 프로 데뷔를 하고 싶었지만 입문 테스트에서 떨어져 스포츠클럽 등에서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해왔다. 할아버지 50주기 다음날 프로 레슬러 데뷔 시합을 하게 돼 뭔가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역도산 3세의 링네임은 ‘力’(지카라). 할아버지의 링네임 ‘역도산’에서 ‘力’을 따온 것이다. 그는 역도산의 대명사인 당수치기와 강인한 정신력, 파워로 할아버지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역도산처럼 검은색 긴 타이즈를 입고 링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손자 모모타 지카라씨(왼쪽)와 아버지.

전남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연탄 나눔'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장훈)이 현대자동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인호)의 지원을 받아 최근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광주 북구, 쓰레기 감량 3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는 최근 광주시가 주관한 '2013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1억58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지렁이를 활용한 감량화식비어파트 운영 ▲나눔 장터운영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도입 ▲환경기초시설 견학 ▲낙엽퇴비화 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광운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이주석씨, 학생 경제 U대회 논술 최우수



조선대학교 경영학부(4년) 이주석 씨가 이대 일리(주)와 (사)한국경제교육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5회 학생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제정책논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 '한국 부채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지도교수 김규영)은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가부채 원인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 재정정책,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고령화의 급증, 과도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을 들고 이에 대한 국가부채 해결방안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학생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미래 경제 경영 산업 IT 분야에서 활약할 차세대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한 대학생 논술 아이디어 경연대회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담양중, 전국학생뮤지컬 페스티벌 참가



담양중(교장 김성희) 뮤지컬 동아리 '청대숲'이 최근 화순하늬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회 전남학생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작품 'One'을 선보였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영식·최영숙씨 장남 재흥(광주일보 프로젝트팀)군 정행자씨 차녀 박애진(양모 코리아)양=22일(일) 낮 12시 2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13-4 9층 아모르홀 062-372-0009. ▲김성환(한화이글스 수석코치)·박미영씨 장남 범진군 최윤대·권명숙씨 장녀 유리양=21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062-228-8000.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7일(화) 오후 6시 30분 수림식당 062-223-0028.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한마당 행사=18일(수) 오후 6시 라마다 호텔 5층 062-228-0197~8(총동창회 사무처).

종친회

▲함양 박씨 광주·전남 종친회 정기총회=17일(화) 오전 11시 북구 북동신협 2층 종친회 사무실 016-604-2182(박해욱 총무).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17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재광 나주 봉황향우회(회장 손동룡) 송년회=17일(화) 오후 5시 마리아주 웨딩스퀘어 3층(구 상록회관).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3일(일) 오전 11시 011-605-2059.

향우회

▲재광 고흥군 향우회(회장 조용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20일(금) 오후 6시30분 호텔 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 010-9102-031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을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 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

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발시위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모집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회 062-674-4008~9.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업 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서림동 샘신평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삭이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S-MI)의과대학 편입생=SSMI 졸업시 국내 의사면허시험 및 미국 의사면허시험 응시가능(학사학위자에 한함·예체능 계열 제외) 062-263-3434.

▲2013 여성가족부 공동협력 사업 '네팔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11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벗 전남여성가족복지회 062-251-7482, 019-622-1721.

▲2013 여성단체·기관 협력사업 '말말인형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9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벗 전남여성가족복지회 062-251-7482, 019-622-1721.

부음

▲2013 여성단체·기관 협력사업 '말말인형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9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벗 전남여성가족복지회 062-251-7482, 019-622-1721.

▲박금에서 별세 지복남(농협)·연자씨 모친상=1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용균씨 별세 태규씨 부친상=1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조선규씨 별세 성수(광주일보 화순주제기자)씨 부친상=발인 16일(월)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2층 061-375-4500.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yKumHo.